

※ 경제 활력대책회의 안건내용으로 기획재정부에서  
기배포한 자료이오니 취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---

# 글로벌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

---

2019. 4. 17

관계부처 합동

# 목 차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..	3
가. 펀드 개요 / 3	
나. 투자자 구성(안) / 4	
III. 펀드 효율적 운용 및 조성을 위한 행정사항 ·	6
가. 펀드관리전문기관 지정·운용 / 6	
IV. 기대효과 .....	7
V. 향후 계획 .....	8

## 〈 요약 〉

□ (추진배경) 해외건설 수주 부진 및 단순도급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수주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응 필요

○ '19년 경제정책방향 반영, 해외수주활력제고방안 및 수출활력제고 방안 내 펀드조성 추진 등 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 방안\* 발표

\* 해외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 수출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  
- 1단계로 1.5조원 조성 후 성과를 보아가며 추가 1.5조원 확대

□ (조성방안)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여 민간과 매칭으로 자펀드(1.5조원) 조성



□ (행정사항) 연내 신속한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펀드관리 전문기관 지정

○ (전문기관) 기존 글로벌인프라펀드(GIF) 최대 투자자이며, PPP 사업 전문기관인 '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'를 펀드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

\* 예타는 펀드 조성 후 투자가 결정된 사업이 예타 대상이 될 경우 시행(기재부 협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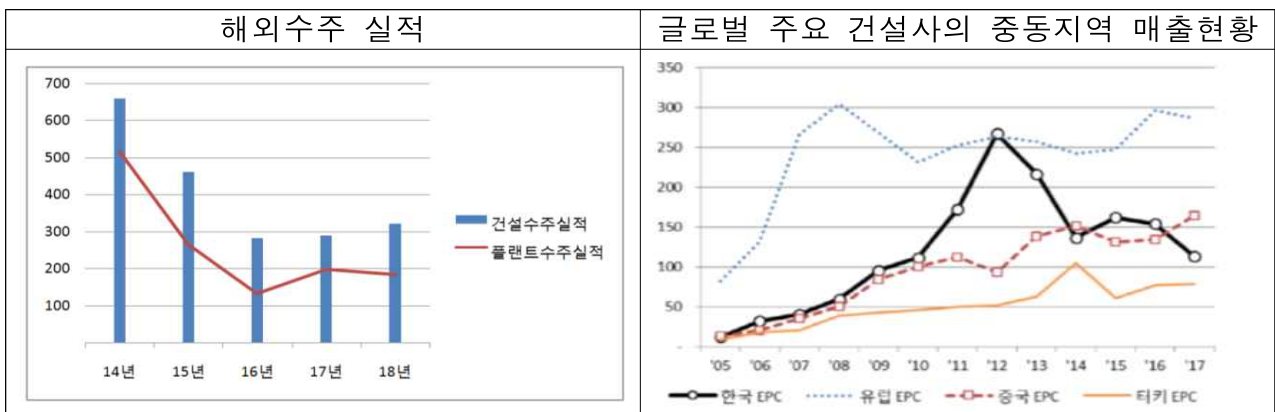
□ (기대효과) 80여건의 사업 지원을 통해 약 13만명의 일자리 창출, 저리의 금융지원으로 해외건설 수주 확대, 국부펀드 성격인 정책펀드 지원으로 사업신용도 보강 등 투자개발사업 경쟁력 제고

□ (향후계획) 경제장관회의 상정('19.4월), 세부투자조건 마련('19.4월) 모펀드 자산운용사 공모·선정('19.6월), 모펀드 투자자간 투자협약('19.6월), 자펀드 자산운용사 공모·선정('19.7월), 투자추진(하반기)

# 1 추진배경

- (수주감소 대응) 건설·플랜트 수주실적은 저유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며, 전통적인 수주 텃밭인 중동마저도 중국 등 후발주자에게 뒤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 필요

\* 해외 건설 수주 실적(억불): ('14) 660 → ('15) 461 → ('16) 282 → ('17) 290 → ('18) 321  
 - 플랜트 수주 실적(억불): ('14) 517 ('15) 265 ('16) 133 ('17) 199 ('18) 184



- 더불어, 대기업 중심의 해외건설 수주 부진 여파가 중견중소기업인 전문건설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

- (시장환경 변화) 저유가, 타 산업과 융합\*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플랜트 위주에서 다양한 인프라사업 수주로 전환 필요

\* 도로+ICT= 첨단도로, 도시+ICT= 스마트시티, 단순도급→ 금융연계 사업 등

- 특히, 해외시장이 수주에서 투자로 변화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인프라사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확대 필요
- 국내 건설투자는 IMF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\*한 반면 해외 건설시장은 '17년 10.9조 달러에서 연평균 3.5% 정도 지속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필요

\* 전년대비 증감률(한은) : '98년 IMF (-10.1%), '08년 금융위기 (-2.8%), '18년 (-4%)

□ (경쟁국 동향) 중국은 실크로드 인프라펀드 조성('14.11, 400억불), 일본은 2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한 인프라 수출 전략을 마련('16) 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아국의 해외 금융경쟁력 위축 우려

○ (투자수요 증가) 금융투자가 필요한 신흥국 PPP 시장은 연간 900억불 ('17 WB) 규모이며, 아국이 검토 중인 사업도 670억불(50건, KIND 검토) 수준으로 현재 지원 중인 소규모 펀드로는 수요에 절대 부족

○ (지속가능한 금융수단 미흡) 국토부는 '09년부터 글로벌인프라펀드 (1~4호, 4,580억)를 조성하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왔으나,

- GIF의 자금규모가 작아 단기간 내 소진되어 증가하는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에 금융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

⇒ 이에 따라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펀드로서 민간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모태펀드\* 조성 등 근본적인 토대를 강화하여 대규모의 자금 소요에 대응할 필요

\* 모태펀드(Fund of Funds, FOF)란 여러 투자자(출자자)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하나의 모 펀드를 조성하여 개별 투자펀드인 자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

□ (그간의 추진경과) 2019년 경제정책방향 내 글로벌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 금융지원프로그램 발표 후 세부 조성안 마련

○ (19년 경제정책방향, '18.12.17) 2019년 경제정책방향 내 총 3조원 규모의 「글로벌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 펀드」 조성 발표

○ (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, '19.2.14)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「글로벌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 펀드」 (3조원) 중 1차분(1.5조원) 조성 및 자금지원 개시('19년 중) 발표

○ (수출 활력 제고방안, '19.3.4) 정부·공공기관 출자와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여 금융토대 마련(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장관회의)

\* 재정 1,500억원, LH·도공·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4,500억원, 수은 및 민간자금 등

##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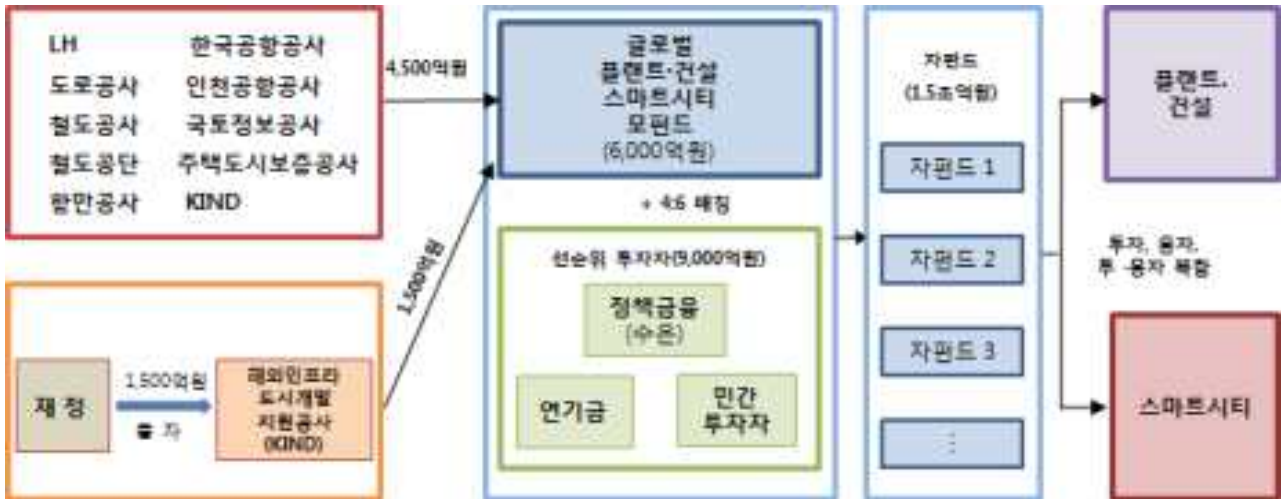
## 글로벌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 펀드(PIS 펀드) 조성방안

- 글로벌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 펀드(PIS) : Plant · Infrastructure · Smart city -

- (펀드 개요) 해외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 수출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(1단계로 1.5조원 조성 후 성과를 보아가며 추가 1.5조원 확대)
  - (모(母) 펀드)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과 매칭으로 자 펀드(1.5조원) 조성 추진
    - (모 펀드 역할) 자 펀드 조성 및 관리, 자 펀드 자산의 유동화 및 Exit 지원, 다양한 자 펀드 포트폴리오 투자로 투자위험 분산
    - (모 펀드 투자대상) 자 펀드 수익증권
  - (자(子) 펀드) 프로젝트 투자, 모 펀드에 자산 매각 및 유동화
    - (성격) Capital Call 방식의 Blind fund\*로 모 펀드와 민간투자자로 구성하며, 민간과 매칭하여 펀드 조성
      - \* 산업별·공종별로 사전에 펀드를 조성하여 자산운용사가 투자대상 프로젝트 선정 후 약정비율에 따라 투자금을 집행(Capital call)하는 펀드
    - (투자대상) 프로젝트 SPC 지분 및 채권 등에 투자
- (자 펀드 구성) 특정분야에 모 펀드와 민간금융과 매칭\*으로 조성하되 예상 후보 사업군(pipe line)을 준비하여 자산운용사 공모를 통해 구성
  - \* 모 펀드가 자 펀드 투자 시 최대 50%를 한도로 매칭 비율 설정, 민간 부문 참여 인센티브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공공과 민간 부문 참여비율을 자율적으로 제안 유도
  - (자 펀드 포트폴리오) 철도, 도로, 공항, 도시개발, 발전 등 산업별, 공종별로 구분하여 조성
    - \* 다만, 조성 초기에는 신속한 펀드 조성 등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(KIND)가 검토 중인 예비후보 대상군을 대상으로 조성(안) 마련
  - (펀드 투자기준) 투자의 안정성 및 해외 건설산업육성 등을 위해 자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추진

- 다만, 모 펀드와 자 펀드 자산운용사, KIND, 투자자간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펀드 투자기준 수립 예정

□ (투자자 구성안) 플랜트 및 건설, 스마트시티 분야 관련 정부, 공공 기관, 정책금융, 민간 등으로 모 펀드 및 자 펀드 투자자 구성



(단위 : 억원)

모 펀 드	재정(KIND)		1,500								
	배 당*		1,587								
	공공 기관	국토부	LH	도공	인천 공항	한국 공항	철도 공사	철도 공단	LX	KIND	HUG
			333	333	333	333	333	333	333	333	149
		<b>2,813</b>									
		해수부	부산항만공사								
	<b>100</b>										
소계		<b>2,913</b>									
합계		<b>재정(1,500) + 공공기관(2,913) + 배당(1,587) = 6,000</b>									
민간부문 (자펀드)		합계			정책금융(수은)			연기금, 공제회, IB 등			
		9,000			2,000			7,000			

※ 19년 배당축소분 : 약 529억, 3개년 배당축소분 : 합계 약 1,587억 전제

※ 민간부문의 자금 유치를 위해서, 펀드 운용손실 발생 시 정부출자 → 공공기관 → 민간 순(순)으로 손실부담

○ 기관별 모(母) 펀드 약정금액(단위 : 억원)

구 분	약정금액*	부담비율	기본투자액	19년 배당축소분	3개년 (19년~21년) 배당축소분
총 액	6,000	100.00%	4,413	529	1,587
정부(KIND)	1,500	25.00%	1,500		
공공기관 약정액	4,500	75.00%	2,913	529	1,587
국토부 산하	4,187	69.78%	2,813	458	1,374
LH	534	8.90%	333	67	201
도공	681	11.35%	333	116	348
인천공항	714	11.90%	333	127	381
한국공항	387	6.45%	333	18	54
철도공사	333	5.55%	333		
철도공단	333	5.55%	333		
LX	333	5.55%	333		
KIND	333	5.55%	333		
HUG	539	8.98%	149	130	390
해수부 산하	313	5.22%	100	71	213
부산 항만공사	313	5.22%	100	71	213



### 3 펀드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행정사항

- (펀드관리 전문기관 지정·운영) 신속한 투자사업 발굴 및 효율적 펀드 투자관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 지정·운영 필요
- (역할) ①펀드 운영을 위한 투자정책서 제안, ②모펀드 운영사 선정 계획 수립 및 선정, ③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자 유치 지원, ④다수 투자자를 위한 펀드운영협의회 운영, ⑤성과평가위원회 운영, ⑥모 펀드 운용현황 관리, ⑦투자사업 발굴 지원 등

【PIS 펀드 운용체계도】



- (전문기관) 종전 GIF 최대 투자자이며, PPP 사업 전문지원기구인 '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'를 펀드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
- (예비타당성조사) PIS 펀드의 투자금액\*은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로 조성을 추진 중이나, 공운법 상 일정금액\*\* 이상의 공공기관의 신규투자 및 출자 시 예타 적용대상

\* 총사업비 1.5조원, 재정지원금액 및 공공기관부담금액 6천억으로 예타대상

\*\* 총사업비 1,000억원 이상 & 재정지원금액·공공기관 부담금액 합계액 500억원 이상 시 예비타당성조사 의무

- 다만, PIS 펀드는 투자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블라인드 펀드로 조성되는 바, 향후 투자사업이 결정되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예타 지침 상 조건 충족 시 예타 수행

## 4 기대 효과

- (일자리 창출) 3조원의 펀드가 모두 투자될 경우 80여건의 투자개발 사업 지원이 가능하고 약 400억불의 수주효과 발생, 이에 따라 약 132천명 일자리 창출
  - \* (기본가정) 총사업비 5,000억원(재원조달 : 지분 25%+ 대출 75%), PIS펀드의 해당사업 SPC 지분비율 30% 투자, 100억불 수주 시 33,000명 일자리 창출 (해외건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연구 - '12년, 카톨릭대·대외경제정책연구원)
  
- (수주경쟁력 확보) 정부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등으로 시장 조달 금리보다 상대적 저리의 금융지원이 가능하여 가격경쟁력 확보
  - 그간 중국 및 일본 등의 경우 자국기업의 프로젝트에 저리의 정책 금리 및 유·무상 원조와 연계지원 등으로 아국 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으로 작용
    - \* (미얀마 땔라와 산단, 한따와띠 공항) 일본의 JICA 자금을 활용, 한국컨소보다 가격경쟁력 확보, (베트남 호치민 1호선) 일본의 STEP Loan (2%이하의 정책금리 지원)을 활용하여 자국기업(스미토모) 지원
  
- (사업신용도 보장) 정부 조성 정책펀드가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국가 또는 MDB에서는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식하여 신용도가 보장되는 효과 창출
  - 해당국가의 정부보증과 MDB의 공동투자 유치가 수월하고 이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으로 민간자금 활용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
  
- (대상사업 다각화 등 투자개발사업 활성화) 해당분야에 강점을 보유한 자산운용사를 통해 다양한 공종별, 산업별로 자 펀드를 구성할 수 있어 우리기업의 투자리스크 보완 등 사업 활성화 도모

## 5

## 향후 계획

- ① 세부 투자조건 마련(4월) : 모 펀드, 자 펀드의 투자조건 마련
- ② 모 펀드 자산운용사 공모(5월) 및 선정(6월)
- ③ 자 펀드별 자산운용사 공모(6월) 및 선정(7월)
- ④ 모 펀드 등록(6월) 및 자 펀드 등록(7월)
  - 모 펀드 등록(6월) 및 자 펀드 등록(7월)
  - 펀드별 투자협약서 체결(6월)
- ⑤ 투자사업 검토 및 투자 추진(하반기)